

벤투호 공수 핵심氣 살았다...손흥민·김민재 완전체 훈련

손흥민·김민재, 대표팀 훈련 분위기 주도
소속팀서 활약 후 합류...체면 지킨 핵심들
평가전 상대 코스타리카, 日과 죽음의 조

축구 국가대표팀이 21일 공수 핵심이 모두 모인 가운데 훈련을 가졌다. 손흥민(토트넘)과 김민재(나폴리)를 중심으로 사기를 끌어올린 벤투호는 오는 23일 코스타리카와의 평가전을 앞두고 전술을 가다듬었다.
대표팀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2시간 가량 경기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NFC)에서 코스타리카전 대비 훈련을 했다.
소속팀 경기를 마치고 지난 20일 오후 후발대로 입소한 김민재, 황희조, 황인범(이상 올림피아코스), 정우영(프라이부르크) 등이 처음 훈련에 합류했다.

손흥민이 "파이팅하자", "집중하자" 등 목소리를 높였고 김민재도 이에 화답하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손흥민과 김민재는 훈련장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자처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대표팀 공수 핵심을 맡은 두 선수는 합류 직전 소속팀에서 활약을 통해 체면을 지켰다. 김민재는 AC밀란전 강력한

수비로 팀 승리를 지켰고 골 가뭄에 시달리던 손흥민도 레스터시티전 헤트트릭으로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손흥민과 김민재가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카타르 월드컵 본선으로 향하는 대표팀의 발걸음이 한층 빨라지는 모양새다.
벤투호와 오는 23일 격돌하는 코스타리카는 북중미 지역 예선을 통과해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하는 나라다. 코스타리카는 이번 월드컵에서 스페인, 독일, 일본과 죽음의 조인 E조에 묶였다. 코스타리카의 피파 랭킹은 34위로 28위인 한국보다 낮다. 한국 국가대표팀은 그간 코스타리카와 9번 맞붙어 4승2무3패를 기록했다.
뉴스스



축구 국가대표팀 손흥민과 김민재가 21일 오전 경기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훈련하고 있다. 벤투호는 오는 23일 코스타리카와 고양종합운동장에서, 27일엔 카메룬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평가전을 치른다.

역대 최고 징계 받은 윤이나, 제2의 김비오·송보배 될까

'잘못된 볼 플레이'를 하고도 이를 뒤늦게 신고한 신에 프로골퍼 윤이나(19)가 한국 여자골프 역대 최고 수준의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윤이나가 김비오와 송보배 등 중징계를 경험한 선배들의 전례를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KLPGA) 상벌분과 위원회는 지난 20일 "윤이나에 대해 KLPGA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모든 대회(투어, 시드전, 선발전 등)에 3년간 출장 정지를 부과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벌위는 "윤이나의 자진 신고 등 정상 참가의 사유가 있었으나 규칙 위반 후 장기간에 걸쳐 위반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과 규칙 위반 이후 대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한 사실 등 KLPGA 회원으로서 심각한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윤이나는 지난 6월16일 열린 한국여자오픈 1라운드 15번홀에서 우측으로 밀린 티샷을 러프에서 찾은 것으로 판단, 경기를 진행했다. 이후 자신의 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대회 종료 후 약 한 달이 지난 7월15일야야 대회를 주관한 대한골프협회(KGA)에 오프플레이를 알렸다. 윤이나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대회 출전을 잠정 중단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으로 KLPGA가 역대 최고 수위 징계를 내린 것은 지나치다는 평이 나온다. 3년 출장 정지는 사실상 선수 생명을 끊는 수준의 징계라는 것이다.

골프 인기를 높이는 측면에서 이번 징계가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있다. 윤이나는 올 시즌 신인상 포인트 4위, 드라이브 비거리 1위를 달리는 등 '차세대 스타'로 주목 받던 선수다. 윤이나는 지난 7월 KLPGA 투어 에버풀라겐 퀸즈 크라운에서는 우승을 차지하면서 인기몰이를 했다.

윤이나가 선수 생활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남자 선배인 김비오 또는 여자 선배인 송보배와 같은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남자 골프 스타였던 김비오는 2019년 9월 DGB금융그룹 볼빅 대구경북오픈 최종 라운드 16번홀 티백스에서 스윙 도중 갤러리의 스마트폰 카메라 셔터 소리에 격분해 가운데손가락을 내밀고 들고 있던 드라이버로 잔디를 찍어 팀인 그라운드를 훼손했다.

그 결과 김비오는 상벌위원회에서 3년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지만 한국프로골프협회(KPGA)는 3주 뒤 출장 정지 기간을 1년으로 경감한 데 이어 2020년 7월 특별 사면을 단행해 김비오의 징계를 풀어줬다.

여자 골프 스타였던 송보배는 2008년 4월 초정 선수로 출전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스포츠서울-김영주골프여자오픈 2라운드에서 경기위원의 물 관정에 항의하며 경기를 기권했다. 이에 KLPGA 상벌위원회는 역대 가장 무거운 징계였던 2년간 국내 대회 출장 정지와 벌금 2000만원을 내렸다.

그러자 송보배는 일본 무대로 진출했다. 송보배는 일본 메이저대회인 일본여자오픈에서 우승하는 등 간판선수로 떠올랐고 이에 KLPGA는 2009년 10월 "송보배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달 초 일본여자골프 메이저대회 일본여자오픈에서 우승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사면했다. 사면을 받은 송보배는 LPGA투어 미즈노클래식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부활했다.
뉴스스



장흥군, 안전 최선 '정남진 장흥 전국 마라톤대회' 준비에 한창

오는 25일 개최, 2,000여 명 참가...교통 통제와 우회로 확보

장흥군은 오는 25일 개최되는 '제16회 정남진 장흥 전국 마라톤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흥군에 따르면 장흥군육상연맹이 주관하는 이 대회는 코로나19 발병 이후 3년 만에 개최되며, 오전 9시에 풀코스 참가자부터 출발하게 된다. 올해에도 풀코스 126명, 하프코스 256명 등 전국 마라톤 동호인 2,000여 명이 참가한다.

군과 마라톤연맹은 안전을 위해 장흥교에서 영암군 금정면까지 코스별 경찰, 자율방범대와 협이하여 도로 교통 통제 및 안전 확보에 나선다.
풀코스인 장흥교-유치면 관동마을 구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면 통제한다. 군은 사전 대회코스 도로 시설물 정비·정소를 완료했으며, 유치면과 부산면 이장단들에게 협조 요청과 교통 통제 안내를 마쳤다.

또한 구급차량 및 의료진도 배치했으며, 안전관리사무위원회 심의 실시 등 안전 관리도 철저히 준비하여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힘쓰고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수려한 자연과 함께 아름다운 탐진강과 장흥댐을 끼고 자연과 하나 되어 달릴 수 있는 최고의 호반코스에 걸맞은 안전한 대회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 기자

김하성, 시즌 10호포...ML 데뷔 첫 두 자릿수 홈런 데뷔 첫해였던 지난해 8홈런...홈런 포함 4타수 2안타

김하성(27·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이 메이저 리그(MLB) 데뷔 두 번째 시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 홈런을 때려냈다.
김하성은 2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펫코파크에서 열린 2022 MLB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경기에서 7번 타자 겸 유격수로 선발 출전, 4회말 홈런을 쏘아올리는 등 4타수 2안타 1타점 1득점을 기록했다.

선두타자로 나선 2회말 첫 타석에서 3루 땅볼로 물러난 김하성의 방망이는 4회 날카롭게 돌아갔다.

팀이 2-0으로 앞선 4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 두 번째 타석을 맞은 김하성은 상대 선발 애덤 웨인라이트의 6구째 커브를 노려쳐 왼쪽 담장을 넘기는 솔로 아치를 그려냈다.

지난 17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전에서 시즌 9호 홈런을 친 이후 나올 만에 때려낸 시즌 10호 홈런이다.

이로써 김하성은 MLB 데뷔 이후 두 시즌 만에 두 자릿수 홈런을 달성했다.

김하성은 MLB 데뷔 첫 시즌이었던 지난해 주로 백업으로 뛰며 타율 0.202 8홈런 34타점의 성적을 냈다.
올해 주전 유격수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가 부상과 금지약물 복용 적발로 시즌을 소화하지 못하면서 더 많은 출전 기회를 잡게 된 김하성은 한층 나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이미 도루 10개를 채운 김하성은 10홈런-10도루도 작성하게 됐다.

6회말 2사 후 좌익수 플라이로 물러난 김하성은 8회 2사 1루에서 좌전 안타를 뽑아내면서 멀티히트 경기를 완성했다. 상대 좌완 불펜 투수 패키 노튼의 2구째 체인지업을 공략해 안타로 연결했다.

후속타자 오스틴 놀라가 유격수 땅볼을 쳐 득점을 추가하지는 못했다.

17일 애리조나전(5타수 3안타) 이후 3경기 만에 멀티히트를 날린 김하성의 시즌 타율은 0.247에서 0.249(469타수 117안타)로 올라갔다. 김하성의 시즌 타점 수는 54개가 됐다. 샌디에이고는 세인트루이스를 5-0으로 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김하성이 20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펫코파크에서 열린 2022 메이저리그(MLB)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의 경기 4회 말 1점 홈런을 친 후 기뻐하고 있다. 김하성은 시즌 10호 홈런을 치며 MLB 데뷔 후 첫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했다.

파하고 4연승을 질주했다. 82승 66패로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2위다.
샌디에이고 선발 마이크 클레빈저는 5%이

닝 3피안타 3탈삼진 2볼넷 무실점으로 제 몫을 다해 시즌 6승째(7패)를 수확했다.

뉴스스

쉽 없이 달린 이상혁, 2022년 월드랭킹 1위 확정 세계육상연맹 남자 높이뛰기 월드랭킹에서 7월말부터 1위 지켜



올해 국제대회에서 꾸준한 활약을 펼친 '스마일 점프' 이상혁(26)이 월드랭킹 1위로 2022 시즌을 마무리한다.
세계육상연맹은 최근 9월 13일을 기준으로 각 세부종목 월드랭킹을 업데이트했다.

7월 26일자 월드랭킹에서 남자 높이뛰기 1위에 오른 이상혁은 주요 국제대회가 모두 막을 내린 이달까지 월드랭킹 1위를 지켰다.

이상혁은 올해를 월드랭킹 1위로 마치고, 내년 상반기까지 1위를 유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세계육상연맹은 기록 순위와 월드랭킹을 따로 집계한다.

이상혁은 7월 19일 2022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이 열리기 전까지 기록 순위에서 실내의 통합 1위에 올라있었다. 이상혁이 2월 6일 체코 후스토페체 실내 대회에서 넘은 2m36이 기록 순위 1위였다.

하지만 무타트 예사 바심(카타르)이 세계육상선수권 결선에서 2m37을 뛰어오르면서 2위로 밀렸다.

기록 순위에서는 1위 자리를 내줬으나 이상혁은 최근 약 12개월 동안의 성적을 바탕으로 정하는 월드랭킹에서는 1위를 놓치지 않았다.

월드랭킹은 최근 약 12개월 동안의 각 대회 기록, 순위에 따라 점수를 매겨 정한다.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올림픽 등 주요 국제대회에는 가중치를 부여한다. 남자 높이뛰기는 최근 약 12개월 동안 치른 대회 중 해당 선수가 높은 포인트를 얻은 5개 경기 평균 점수로 월드랭킹을 정한다.

이상혁은 평균 1405점으로 1위를 유지했다. 이상혁의 랭킹 포인트 산정에 포함된 5개 경기 성적은 2022 유진 세계선수권 결선 2위(2m35·1534점), 세계실내선수권대회 1위(2m34·1415점), 도하 다이아몬드리그 1위(2m33·1406점), 모나코 다이아몬드리그 2위(2m30·1349점), 반스카 비스트라차 실내 대회 1위(2m35·1324점)다.

지난해 9월부터 줄곧 월드랭킹 1위를 달리다가 올해 7월말 이상혁에게 1위 자리를 내준 장마르코 템베리(이탈리아)가 1383점으로 2위, 바심이 1375점으로 3위에 올랐다.

가중치가 부여되는 올해 주요 국제대회는 모두 끝났다. 내년 대회 일정까지 마친 템베리와 바심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상혁을 추월하기 힘들다.